

국가예산 확보 한마음 결의

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정치권·도·시군 협력 대응 방안 논의

전북도는 국회 정상화에 발맞춰 4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가 한자리에 모여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내년 국가예산 확보 전략, 군산 조선소 조기 재가동 등 도정 현안, 시군 현안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전북 대도약을 위해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내년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되어 기재부 2차 예산심의가 진행되는 중요시점으로 추가 확보가 필요한 타깃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 산업구조 다각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조선기자재기업신재생에너지업종전환' 90억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조성' 50억원, '해상풍력 전문연구센터건립' 80억원 등 예산반영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품·종자·미생물 등 농생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육성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허브 구축' 10억원,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구축' 5억원, '중자교통신화 핵심기술기

반 구축사업' 5억원 등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도내 각 지역별 관공지원을 특성화·연계하고 수요자 중심의 여행체험 1번지 실현 및 전북의 자존의식 복원을 위해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국립 원주문화재연구소 건립' 87억원, '장수 가야유적복원정비사업' 24억원 등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도로·공항·항만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으로 국내의 투자유치 및 2023 세계잡버리 성공개최를 위해,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 6530억원, 새만금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신단 입대유치' 280억원 등 반영도 피력했다.

기후변화 대응 환경구축과 재해예방 등 안전 전북 실현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제3교통신전체원센터 건립' 15억원, '장애인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20억원, '차생식물원 조성사업' 50억원 등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전북현안과 관련 군산조선소 조기 재가동 및 GM 군산공장 활용방안으로 논의중인 전북 상생형 일자리모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금융기관 집적화, 전문인력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통한 금융

인프라가 조속히 확충될 수 있도록 금융산업육성 지원을 요청하고, 법률제·개정 필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법 제정)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탄소소재법 개정)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지역지원시설세 개정) ▲새만금 사업법 개정을 위하여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아울러, 국토부에서 수립중에 있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 5차 국토·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에 우리도 중점 SOC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14개 시장·군수는 시군별 주요현안을 건의하며, 정치권·도와의 공조 등을 통해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기재부 예산심의를 대응하기 위해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해 도 간부가 총 출동하여 각 부처 및 기재부를 방문해 정정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특히, 10일에는 세종에서 국가예산 최대 확보를 위한 현지 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등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 원대 확보를 목표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4일 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6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에 송하진 도지사가 마을기 입장식에서 마을대표들과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삼락농정 실현 전북 대표 생생마을의 매력 '각양각색'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성료
마을 주민 소통·화합기회 제공
농촌 공동체 활성화 도모 유도**

전북도는 4일 도청 공연장에서 '제6회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전북도는 마을만들기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여 마을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농촌마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콘테스트에서는 ▲소득·체험 ▲경관·환경 ▲문화·복지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의 마을단위 4개 분야에서 마을만들기를 위한 노력도, 성과, 지속성 등에 대한 발표와 주민들이 바랜 농사철에도 틈틈이 갈고 닦은 마을연극, 사물놀이 공연, 합창공

연 등의 퍼포먼스가 흥미롭고 열정적으로 진행됐다.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마을'이라는 슬로건 하에 진행된 이번 '생생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올해로 6회째를 맞으며 전라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추진의 내발적 발전 동력이자 생생마을을 알리는 홍보의 장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올해도 시군 자체평가를 거쳐 추천된 18개 마을을 대상으로 서면·현장 평가가 진행되었고 12개 마을을 최종 선정, 도 예산 무대에서 중앙무대 진출을 위한 최우수 자리를 놓고 뜨거운 경쟁을 펼쳤다.

콘테스트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상을 수상한 마을(4개)은 오는 8월 28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전국대회 본선무대에 전북 대표로 출전해 전북도 생생마을만들기 사업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2018년 전북 대표마을로 출전한 최우수 3개(완주 고산촌, 진안 상가막, 순창 두지) 마을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본선대회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각각 수상하여 생생마을만들기 정책의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락농정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마을 주민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셔서 각계각층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역시도 최초로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고, 2020년까지 생생마을 1000개소를 조성해 사람 찾고 활력 있는 농산어촌을 만들 것"이라며

“농식품부 중앙 콘테스트 본선에 진출해서도 전북 생생마을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한빛원전 안전대책 즉각 수립해야”

부안군이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사건과 관련해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 하고 나섰다.

4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을 찾은 권익현 부안군수 등은 “전남 영광 한빛 원전은 부안에서 직선거리로 20km가 되지 않는다”면서 부안군민 안전협의회 구성과 불합리한 원전지원금제도 개



선을 요구했다.

권 군수는 성명서를 통해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 1986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것으로 한빛원전에 있는 총 6기 가운데 가장 오래된 원자로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10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제한치 발생과 관련한 수동정지 사건이 발생해 한빛원전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부안군민들은 심각한 불안감과 함께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권 군수는 “부안은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지로 원전 사고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하지만 원전과 관련한 정부정책이나 각종 방재대책 사업은 전무한 실정으로 군민들은 허탈함과 실망감, 불안감이 극에 달해 있다”고 전했다.

이어 “즉각적인 한빛원전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안군도 전남과 똑같은 방사선 피폭 위험에 노출된 만큼, 지역지원시설세 부과범위를 발전소 소재지에서 비상계획구역인 발전소 반경 30km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한수 군의회 의장, 군 사회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여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융합섬유, 취업연계 인력양성 교육 실시

ECO융합섬유연구원(김인관 원장)은 '수요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사업' 교육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력양성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년 단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섬유·패션기업에 필요한 섬유·패

션 디자인, 마케팅, 탄소·복합섬유 소재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교육협업 시스템을 구축해 직무 훈련부터 취업연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교육대상은 만 34세 이하 2년제 대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

육과정은 직무관련 전문지식 이론교육 2주, 기업 현장실습 중심의 OJT교육 2주, 총 140시간 교육이 진행된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지역섬유산업에 필요한 디자인, 마케팅, 복합소재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확보를 통해 기업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산=장영원 기자

“축제로 뜨거워질 전북의 겨울로 놀러오세요”

도, 겨울축제 5개 선정

올 겨울도 전북은 축제로 뜨거워질 전망이다.

전북도는 4일, 2019 전북 겨울철 관광상품(축제) 5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돼 도의 지원을 받게 된 축제는 임실 '산타축제', 진안 '마이산소원빛축제', 남원 '동동동화', 무주 '초리풍뎠놀이', 완주 '윈터푸드페스티벌'이다.

임실 '산타축제'는 19명의 산타를 찾아라, 치즈컬링, 크리스마스 벽화 꾸미기, 산타경연대회, 치즈요리나눔 행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12월 21일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개최된다.

진안 마이폰 테마파크 광장에서 12월 28일부터 1월 1일까지 개최될 마

이산 소원 빛 축제는 소원말하기 대회, 얼음팽 대동이벤트, 얼음미끄럼틀, 소원터널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남원의 '동·동·동화(冬·童·童話)' 축제는 남원예촌과 지리산 허브밸리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겨울왕국 조형전시, 얼음트랙쇼, 동화나라 겨울공주·겨울왕자 선발대회, 이글루, 산타콘서트, 동화인형극 등을 12월 21일부터 내년 2월 8일까지 진행한다.

무주 '초리풍뎠놀이'는 12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얼음썰매, 와이어 썰타기, 군밤굽기, 맨손송어잡기, 겨울동물원, 어린이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먹거리 및 세시풍속을

주요 주제로 모라모라 꼬치 화로구이, 강릉스토브 속 우리밀 냄비라면과 달걀 삶기, 겨울간식 만들기, 생생얼음썰매, 도란도란 겨울밤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앞으로 프로그램 및 콘텐츠 사전컨설팅을 통해 축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전라북도 전담여행사(10개) 설명회, 서울·부산 등 주요도시·고속도로휴게소·혁신도시 이전 기관 대상 홍보, 페이스북 홍보 등은 오프라인을 통해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황철호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축제를 통해 관광비수기인 겨울철에 지난 2년 동안 17만명의 관광객을 도내로 유치했다”며 “올해는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